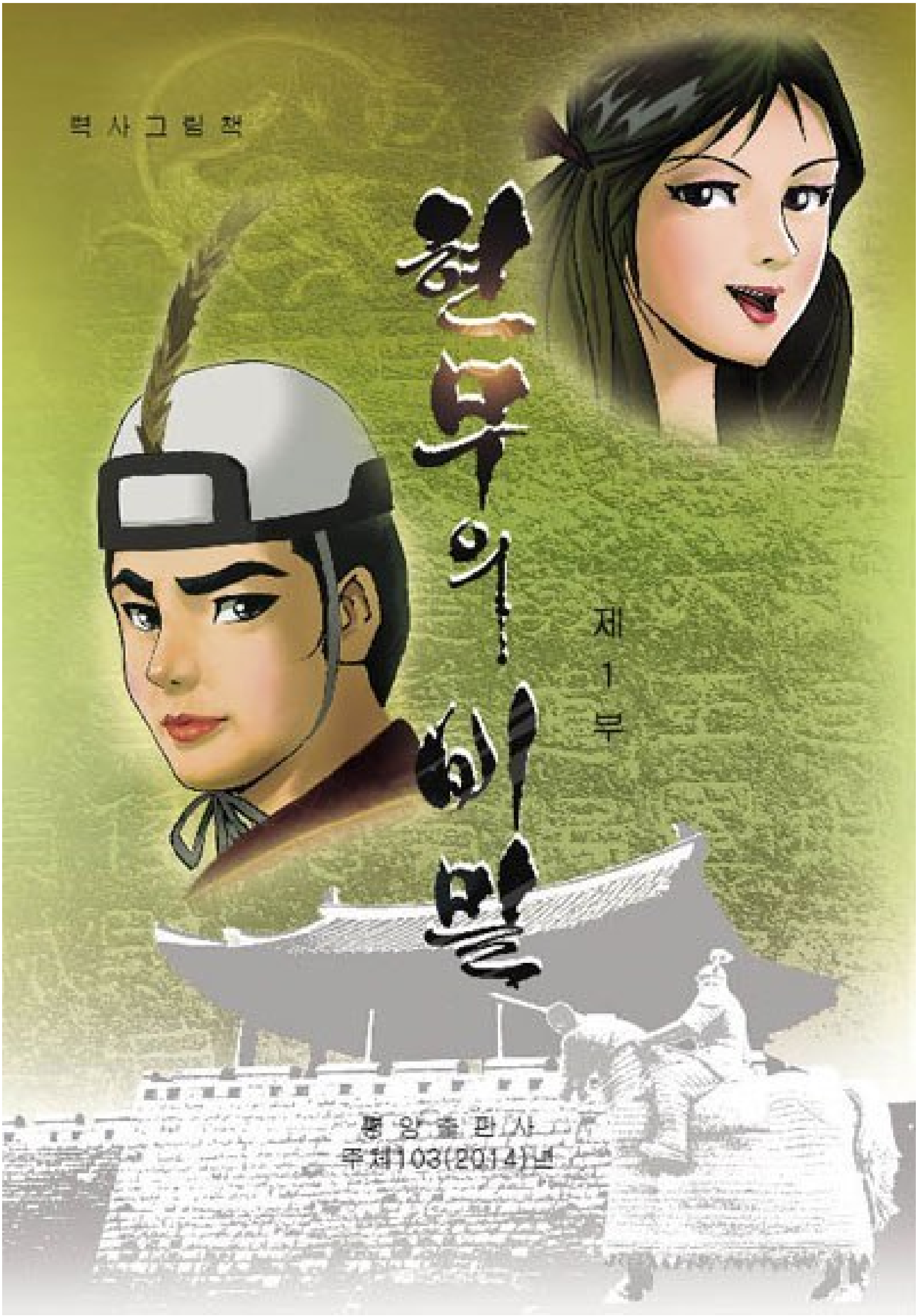

력사그림책
천무의 비밀
제1부
평양출판사
주체103(2014)년



옛말할아버지

내 이야기 들어주면
나는 신바람나고
내 이야기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잠이나 쿨쿨 잔다네

산 날보다 살아갈 날 더 많아
무슨 일이 있을지 어찌 알랴

너와 나
싸우기도 하고 친하기도 하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네
여기서 웃는이 뉘고 우는이 뉘냐

누구나 바라는건
정의롭고 용감한 사나이
착하고 부지런한 처녀런가

하하하
바보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멋없이 손벽치며 웃기만 하네

흘러간 세월은
꼬아놓은 동아줄이런가
여기에는 슬기와 지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이야기 깃들어있다네

현무의 전설과 함께 계수의
이야기 우리 한번 펼쳐보자
세월은 흘렀어도 력사에 남긴
교훈이 있다네



력사그림책

현무의 비밀



제 1 부

천둥치는 궁성



평 양 출 판 사
주체103(2014)년

나오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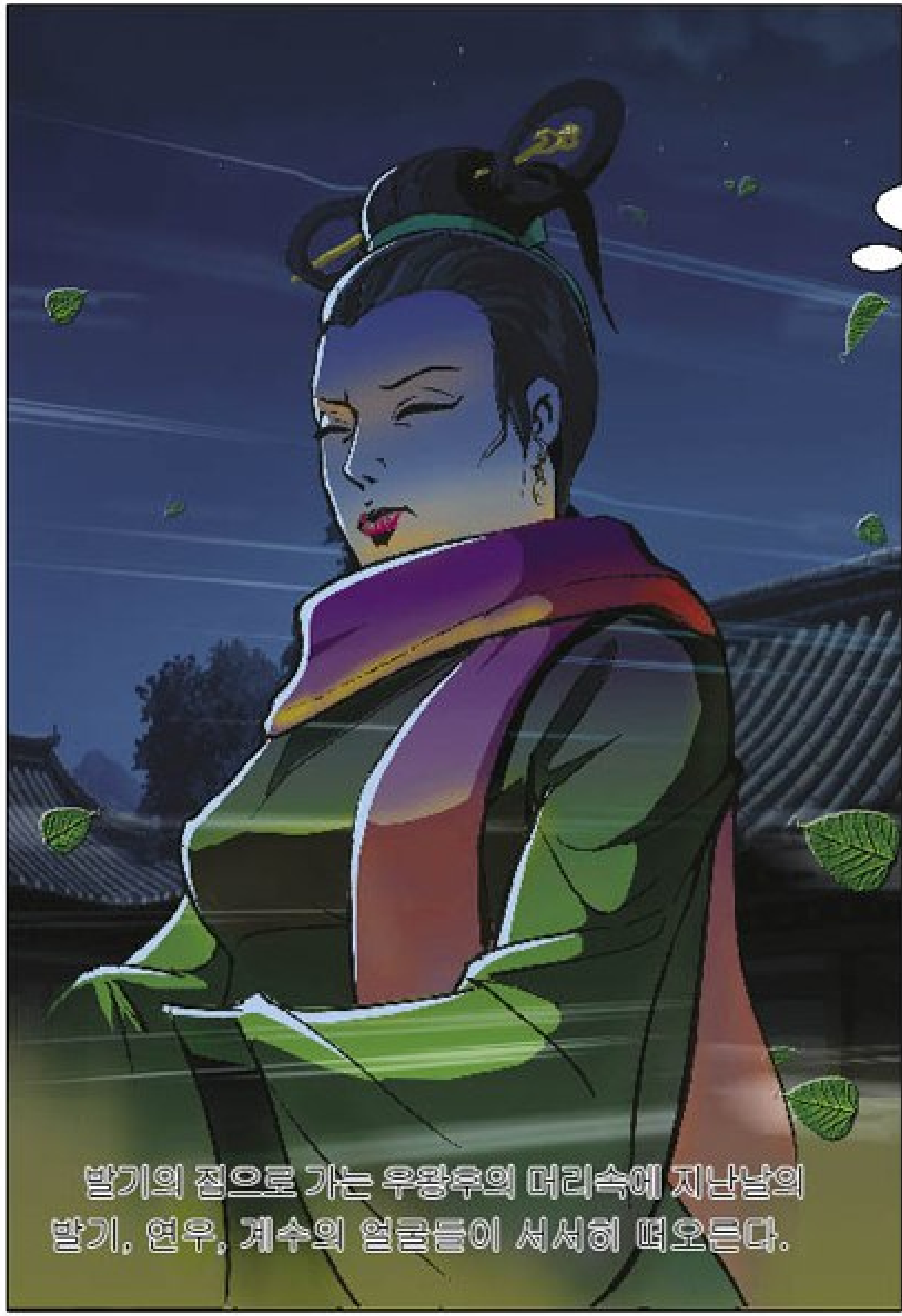


이 이야기는 수백년동안 인민들의 애국충정에 의하여 동방의 제일강대국으로 자랑떨치던 고구려시기의 력사적사실을 그림으로 옮긴것입니다.


고구려의 궁성하늘가에 그 무엇을 예언이나 하듯 검
은구름이 밀려오고있었다.
왕은 림종을 앞두고 마지막힘을 모아 눈을 떴다.
아들이 없어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것이 걱정되여서였다. 그러
나 곁에 왕후만이 있고 대신들이 없는것을 보고는 열려던
입을 다물고 끝내는 운명하고말았다.
꽈릉-


훅-
대왕마마-


왕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왕후는 당황하여 어찌할바를 몰랐다. 하지만 인차 그는 자기의 앞일을 두고 생각하게 되였다.
이랴ㅡ
그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발기부터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
왕의 형제들중 누구를 왕으로 되게 하는가에 따라 그의 앞날이 달라지기때문이였다.
발기? 연우? 계수?
뚜거덕-뚜거덕-


발기의 집으로 가는 우왕후의 머리속에 지난날의
발기, 연우, 계수의 얼굴들이 서서히 떠오른다.


깊은 숲속
이랴~
네놈이 뛰어야 벼룩이지!
흥~


내 네놈에게 단단히
주먹맛을 보여줄테다.
털썩-
발기왕자님,
위험하오이다!


얏!
으악-

16





17


아니?
연우왕자님이?
이 사람이 발기의 동생 연우이다. 령리하고 처세에도 밝으나 의리가 깊지 못하다.
발기형님, 상하지 않았어요?


넌 왜 끼여드는거냐?
제길할, 본때를 보이는건데…
형님이 위험했어요.
그 잘난 메돼지 한마리가 뭐라구.


하하, 형님두 비슷한데가 있군요?
날 놀리는거냐?
내가 잘못했군요. 형님이 메돼지와 맞붙어서 뒹굴라구 놔둘걸…
내가 사냥만 하고 공부하지 않는다고 네가 대왕전하께 일러바쳤지?
형님은 여전하시군요. 쩍하면 날 의심하시면서…


어느 산골짜기
아-
형님들이 다 따라왔구나! 야단인데…
계수야, 넌 천발자국이나 앞서서 떠났는데 이게 뭐야?


하하하, 우리가 따라잡았지… 자, 힘을 내라.


계수야, 일없니?
이 사람이 바로 막내동생 계수왕자이다. 용맹하고 지략있고 의리가 깊다.

24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우왕후는 어느새
발기의 집 문앞에 다달았다.
똑 똑 똑-
대왕께서 별세하셨다는
말을 아직은 꺼내지 말자.
뭐요?
내가 왕위를?!
조정에서 론의할 문제를 어째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왕후의 밤출입이 례절에 어긋난다는것을
왕후는 모르시오이까?

25


한밤중에 찾아온 왕후의 속내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혹시 역적모해를?!
왕은 아들이 없었던것으로 하여 자기의 형제들중 누구에겐가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맏이인 발기가 왕이 되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였다. 헌데 왕후가 때아닌 밤중에 불쑥 나타나 왕위문제를 론하려 하니 발기는 성이 나서 왕후를 쫓아버리다싶이 하였다.
말도 몇마디 못하고 문전 거절당하다니!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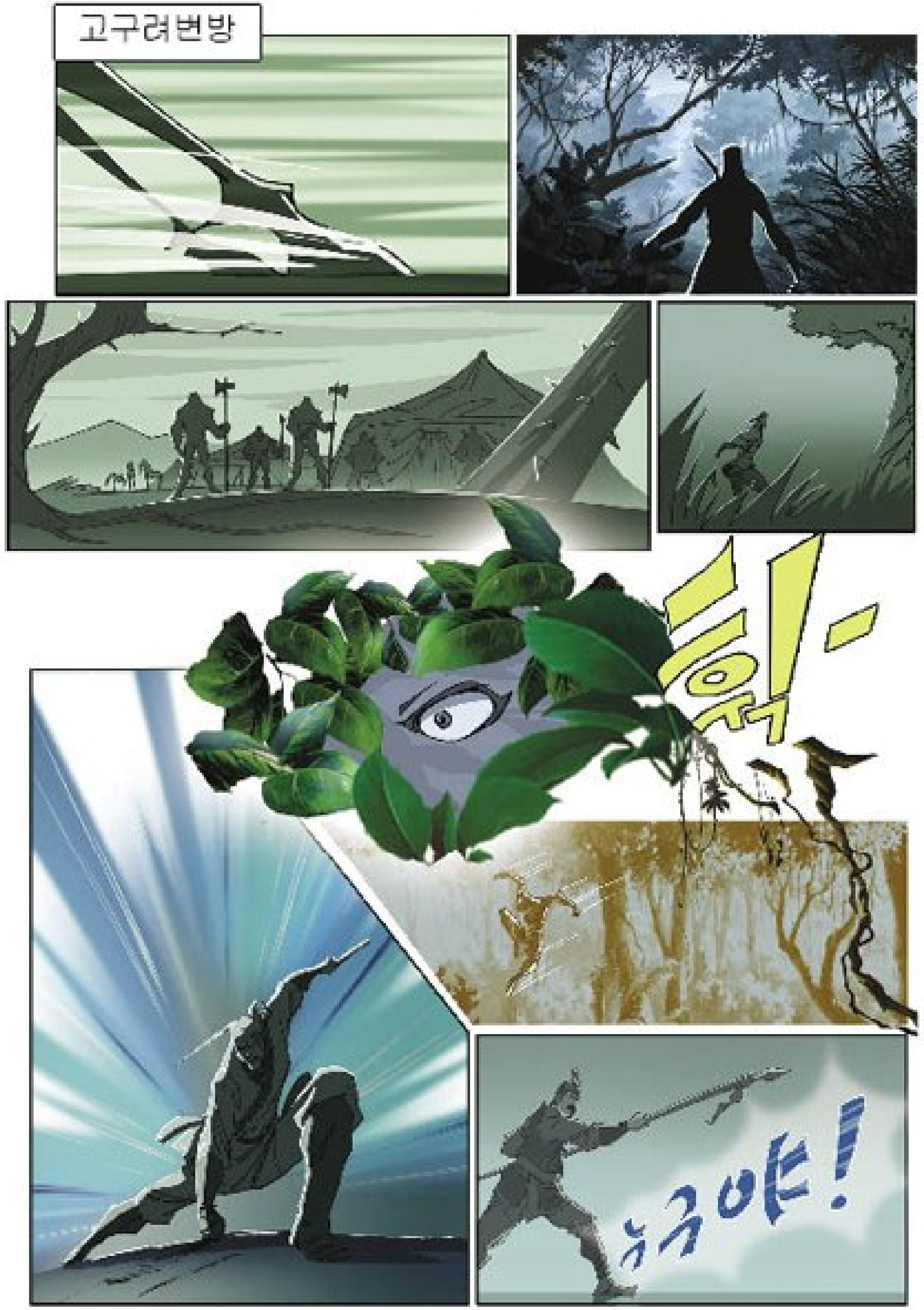

고구려궁성
저- 왕후마마, 안색이 좋지 않으신것을 보니 무슨 일이라도…
웬 참견이냐.
죄송하옵니다. 사실 왕후마마의 앞일이…
응?
?!...
뭔지 어서 말해보아라!
발기왕자님이 왕후마마를 좋지 않게 대해주었다는건 저도 아는 일이오이다. 뒤일이야 어떻게 알겠소이까. 혹시 발기왕자님이 옥좌에 오르시면 왕후마마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겠소이까.

28


왕후마마께서 마음놓으실 방법이 있긴 한데…
거참, 듣기는 좋구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발기왕자님이 좀 우직하긴 해도 사나이다운 사람입지요.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동생인 연우왕자님도 령리하고 뛰여납지요!
앞으로 연우왕자님과 가깝게…
쓸데없는 소리, 썩 물러가! 난 혼자 있겠다.

29


죄송하오이다. 그럼 소인은…
뚜거덕-
내시가 궁성을 조용히 빠져 어디론가 바삐 가고있었다.


고구려번방
누구야!


나 《검은 족제비》다.
저자는 누구야? 건방진 자식…
글쎄, 어쨌든 저 패쪽이 있으면 통과야. 그리구 왼손잡이 같애, 이 자 봤지?
이 기회에 발기와 연우를…
수군 수군
그렇단 말이지… 좋다! 서로 싸우게 부추기도록 해라.
걱정마소이다. 헤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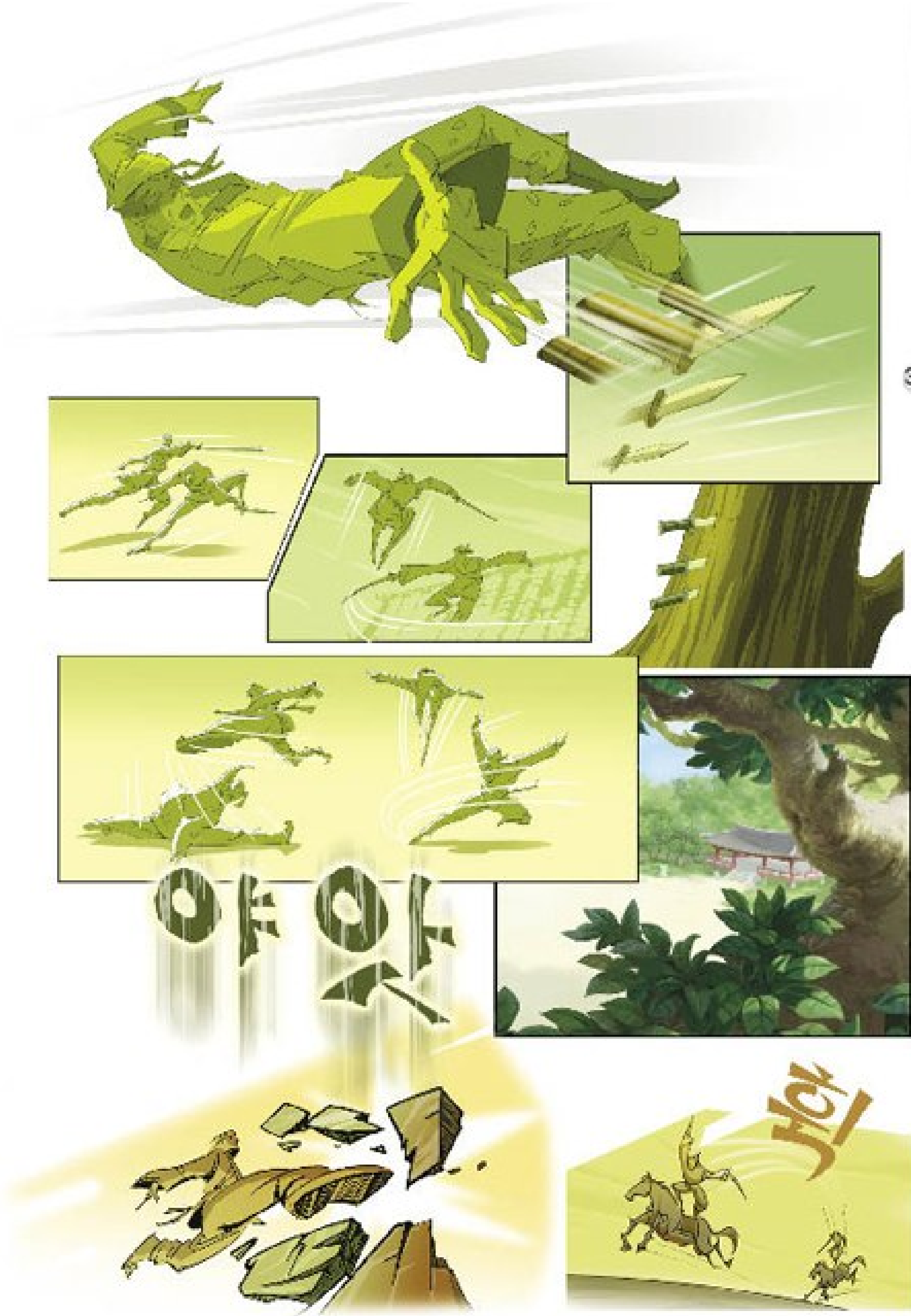

한편 계수는…
야 요것들, 참 깜찍한데…


따웅
야-
비실- 비실-


부실- 부실-
부실-
범에게 몰려 벼랑턱에 매달린 계수가 당황해하는데 어디선가 낯모를 처녀애가 불쑥 나타났다.
어서 내 손을 잡고 올라오시오이다.
빨리!
물러가지 못해!


어휴- 혼났다.
정말 고맙소이다. 랑자의 이름이 뭐요? 어디에 사는지?
그건 몰라도 되오이다!
저 랑자는 누굴가? 왜 산에 있었을가?
계수는 고마운 처녀애의 집과 이름이라도 알아들 생각으로 그의 뒤를 따라 산을 내렸다.


어느 마을입구
컹- 컹-
무술을 련마 하누나!
멋있는데!
얏


야 얏
착


윙윙
얏
야-


어험-
넌 누구냐?
나는 계수라고 하오이다. 성안에서 사오이다.
뭣때문에 여기 왔지? 여기서 뭘 하고있었느냐?
그저… 저는 길을 잃어서 마을까지 들어왔소이다.
헌데 무술훈련하는걸 보니 정말 대단하오이다.
그래?! 무술에 관심이 있는걸 보니 꽤 하는 모양인데…


우리 마을 무사들과 한번 무술을 겨루어볼 용기가 있느냐?
한번 해보겠소이다.
좋다, 그럼 어디 한번 보자!


아지는 계순의 시합을 눈여겨 살펴 ―――
보고있었다.


계수는 시합후 아지와 만나게 되였다.
정말 많은걸 보구 재미도 있었소이다. 참, 마을사람들에게서 좌상로인이 랑자의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었소이다. 글쎄 어쩐지… 정말 좋겠소이다.
그런데 모르겠소이다. 나라를 지키는 군사가 있는데 랑자는 왜 무술을 련마하오이까? 아녀자의 몸으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오이다. 우리 할아버진 늘 백성이 있구야 나라와 임금도 있다구 하시며 백성은 누구나 상무기풍을 세워 나라위해 애국충정을 다해야 한다고 하셨소이다. …


애국충정! 참, 좋은 말이오이다.
그런데 아까 범이 어떻게 쉽게 물러갔소이까?
예- 우리가 사냥갔다가 폭포에서 떨어진 어린 범 한마리를 가져왔는데 할아버진 키워서 놓아주자고 하시면서 정성을 다하셨소이다.
그 범이 저렇게 새끼를 거느렸소이다.
글쎄 그랬댔구나!


그만하고 달려보지 않겠소이까? 제가 산등성이까지 바래드리겠소이다.
좋소이다. 이랴-
빨리 따라오시오이다-
쳐- 쳐
나만큼도 말을 잘 타지 못하시오이다. 괜찮소이다. 자꾸 타보면 되오이다.
하하하, 내 다음번에는 랑자를 꼭 따라 앞서겠소이다!
호- 호-호



《할아버지는 늘 우리 고구려사람들은 모두가 말타기와 칼쓰기, 활쏘기를 즐겨하였고 외세로부터 나라와 겨레를 지키는 의로운 싸움에 자기의 한목숨도 아낌없이 바치는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다고 하시군 하오이다.》

계수는 자기가 체험한 일들을 생각하면서도, 아지의 말을 들으면서도 어째서 고구려가 강대한가를 다시금 느끼게 되였다.


궁성무술훈련장
계수왕자님, 이제는 말달리기나 검술에서 제가 왕자님을 이기지 못하겠소이다.
태사께서 더 채찍질을 해주시오이다.


아니오이다, 계수왕자님께서 이전부터 애쓰신 결과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단숨에 되겠소이까. 제 생각에는 이젠 그 누구와 당당히 겨루어도 짝지지 않겠소이다. 정말 기쁘오이다.


연우의 집
한편 우왕후는 깊은 생각끝에 연우를 찾아갔다.
연우는 왕후의 뜻밖의 출현을 매우 이상하게 여기며 어떤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겼다는것을 대뜸 간파하였다.
왕후마마, 어서 들어오시오이다.
소곤
소곤
이렇듯 불민한 사람을 믿고 찾아주니 실로 황감하오이다.


두사람의 의미깊은 눈길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다음날 아침 우왕후는 대왕의 죽음을 알리는 동시에 대왕의 유명으로 연우가 왕이 된다는것을 공포하였다.

52


대왕의 무덤
한편 이 일을 알수 없는 발기와 계수는…
대왕마마-
하인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발기왕자님… 저-
뭐라구?! 연우가 옥좌에?
아니, 그럴수 없다!
사실이오이다. 제눈으로 똑똑히 보았소이다.
형님, 내가 가보겠소이다.


이놈 연우야,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피를 나눈 동생이라도 왕족의 례절을 어기고 왕위를 차지한 너를 결단코 용서치 않을테다!
텅-

54



발기는 이 모든 일의 어두운 내막을 그제야 낱낱이 짐작할수 있었다.
이랴-
계수는 연우가 있는 궁성을 향하여 급히 말을 몰아갔다.

55



일은 그렇게 되였다.
아무리 대왕마마의 유명이라고 하더라도 맏형님에게 양보하는게 마땅하지 않겠소이까?
나두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대왕의 유명을 지키지 않을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나라에는 한시도 임금이 비여서는 안된다.
세상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이까? 전하께서 옥좌에 욕심이 있다고 하지 않겠소이까? 내 생각이라도 그러하겠소이다.
뭐라구? 그래 넌 어찌겠다는거냐? 네가 임금에게 훈시냐? 혹시 발기한테 가겠다는것이 아니냐?
대왕전하!
넌 대왕의 유명을 따르지 않겠다는거구나. 그렇다면 너는 역적이 된다.
음-



수군 - 수군 -
궁성안팎에서 병쟁기가 절그럭거리고 온 나라가 불안으로 술렁거리였다.
옥좌를 찬탈한 연우는 나오라!
궁성문밖
연우는 나오라!
성이 머리끝까지 오른 발기는 자기의 가병들을 내몰아 궁성문앞을 지키고 섰다.

56

57



발기, 듣거라! 나는 대왕마마의 유명대로 왕이 되였다. 그런즉 우리들사이에는 형과 동생이기 전에 왕과 신하의 관계이다. 만약 네가 순순히 나의 명을 들으면 관대히 용서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너는 역적이 될것이다. 그때는 늦어!
걷어치워라! 너야말로 대역무도한 놈이구나. 제 형을 밀어내고 왕위를 찬탈해?! 어서 성문을 열고 내 칼을 받아라!
한번 더 묻는다. 신하로서 왕명을 듣겠느냐?
너는 더러운 음모로 왕이 되였다. 그렇게도 왕자리가 탐나더냐!
끝내 반역하겠다면 좋다.



반역자를 용서할수 없다.
누가 옳고 그른지 계수, 네가 어디 한번 말해봐라.
형님, 이러면 안됩니다. 어서 칼을 거두소이다.
뭐라구?! 음- 그러니 너두 저 찬탈자와 한편이 되였구나. 내 기어이 네놈들과 해볼테다. 둘 다 내 칼을 받아라!
저 천하무도한 놈들을 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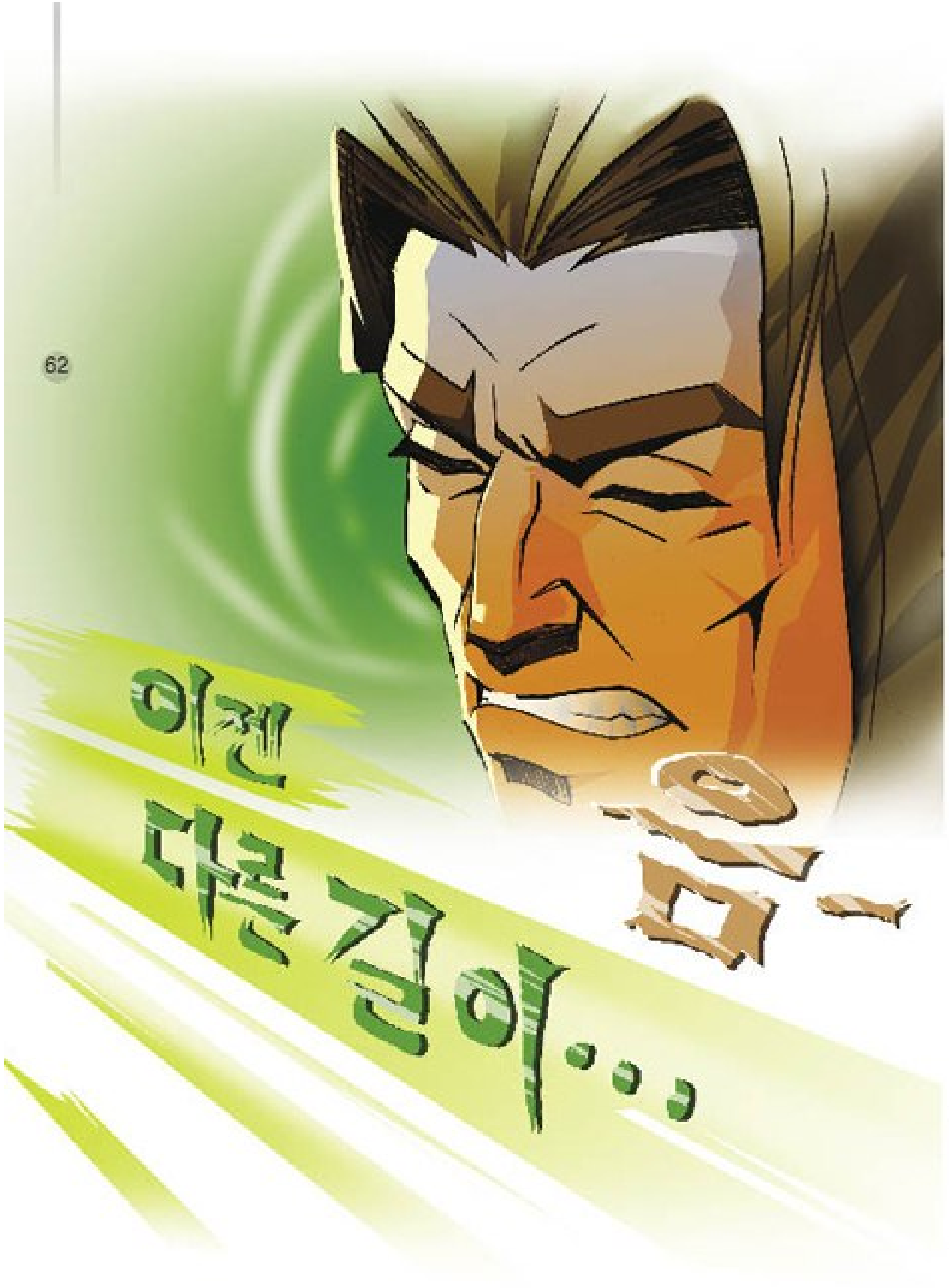
얼마 안되는 가병의 힘으로는 도저히 궁성을 깨뜨릴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발기는 도망칠수밖에 없었다.

60


전하, 발기형님과 화해 하는것이…
뭐라구? 날보고 저 역적놈과 화해하라구? 나는 임금이다. 역적과 화해란 있을수 없다. 네가 발기를 모른단 말이냐?! 발기는 좋게 타이르면 타이를수록 더욱 기가 뻗쳐 날뛸거다.
그럼 어떻게?…
가만 놔두어라. 벌써 역적놈들은 힘이 빠졌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제풀에 가라앉고말게다.
예?

61


궁성정문의 루각
아-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궁성밖 발기의 진
발기왕자님, 형세가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우리 힘이 너무 약하오이다.
우는소릴 작작 해. 무슨 수가 있느냐!
쑥덕- 쑥덕-
뭣이?! 변방 족군사를…
어쨌든 이기고봐야 하지 않소이까? 자고로 이긴자에게는 죄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소이다. 빨리 결심을 내리시오이다.
하지만… 흑-


음-
이젠 다른 길이…


변방족의 진
그대는 내가 어떻게 도와달라는것이요?
나에게 당신의 군사를 빌려주오. 동생이 형을 밀어내고 왕이 되는것은 천하무도한짓이요. 나는 그런짓을 용서치 않으려고 하니 추장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오.
그렇다면 좋소. 헌데 당신이 동생을 이기고 옥좌에 오른다면 우리에게 어떤 사례를 할수 있소? 그 담보를 할수 있소?
있소! 보상은 잘 해주겠소. 그러니 꼭… 도와주길 바라오.
그럼 그렇게 알고 난 돌아가겠소.


흥-흥-
발기가 용감하다고 하더니 헛소리였구나.
용감한것은 사실이오이다.
아니다,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는 놈은 아무리 용감하다고 해도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저놈을 너무 믿지 말라. 우린 저놈을 미끼로 우리 일을…
발기는 자기가 무슨 죄악을 짓는지도 모르고 군사들의 앞장에 서서 성으로 막 쳐들어오고 있었다.
여보게, 이거 아무래도 께름직한걸. 우리가 나라를 배반한 역적이 되는게 아닌가?
야!
그러게 말이야. 발기왕자가 이럴줄 누가 알았나? 잘하는 일 같지 않구만. 우리 틈을 보아 슬쩍 빠지세.


한편 연우는 계수를 선봉장군으로 임명하고 발기를 치도록 하였다.
여봐라, 무슨 군사들이냐?
아뢰오- 선봉장님, 다른 나라 군사들인줄 아옵니다.
뭣이?! 어서 봉화대에 불을 지피고 북을 울려라!

66


부웅—
부웅—
외적이 침노했소—

67


아니— 선봉장님, 저앞에 선 장수가 낯이 익소이다.
발기왕자가 아니오이까?
나도 지금 보고있다. 일신의 부귀영화와 권력을 위해 고구려의 존엄과 위용을 욕되게 한단 말인가?!
계수는 남몰래 피눈물을 삼키며 권력에
환장을 한 형들을 저주하였다.


발기형님, 이게 무슨짓이오이까? 형님은 고구려의 존엄에 그늘을 지은 역적이 되려 하오이까!
나라를 배반한것은 연우와 바로 너다. 나는 천하 무도한 연우와 너를 징벌 하려고 한다.
안되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소이다. 어서 외세를 물리치소이다. 성풀이를 하려고 했다면 모르오나 외적을 끌어들인 죄 더는 용서받지 못할것이오이다. 그래도 난 형님이 한때의 분을 삭이고 화해할줄 알았소이다. 이럴줄은 정말 몰랐소이다.


닥쳐라! 형을 배반한 네가 감히 날 훈시해?! 그래 그렇지 않으면 어쩔테냐? 나와 해볼테냐?
형님, 제발 정신차리시오이다. 제 나라에 칼끝을 돌리면 안되오이다.
오냐, 내 네놈들의 목을 다 칠테다. 어서 내 칼을 받아라-


정 그렇다면 할수
없소이다.
고구려의 존엄을 지키려는
수많은 백성들과 군사들이
역적을 용서하지 않을것
이오이다.
텅-


좋다! 누가 역적
인가는 검이 말해
줄거다.
얏-
계수는 고구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군사들을 이
끌고 의분의 칼을 높이 들었다.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74



75






고구려땅이 아무리 넓어도 네놈들이 갈 곳은 없다!
적들을 용서치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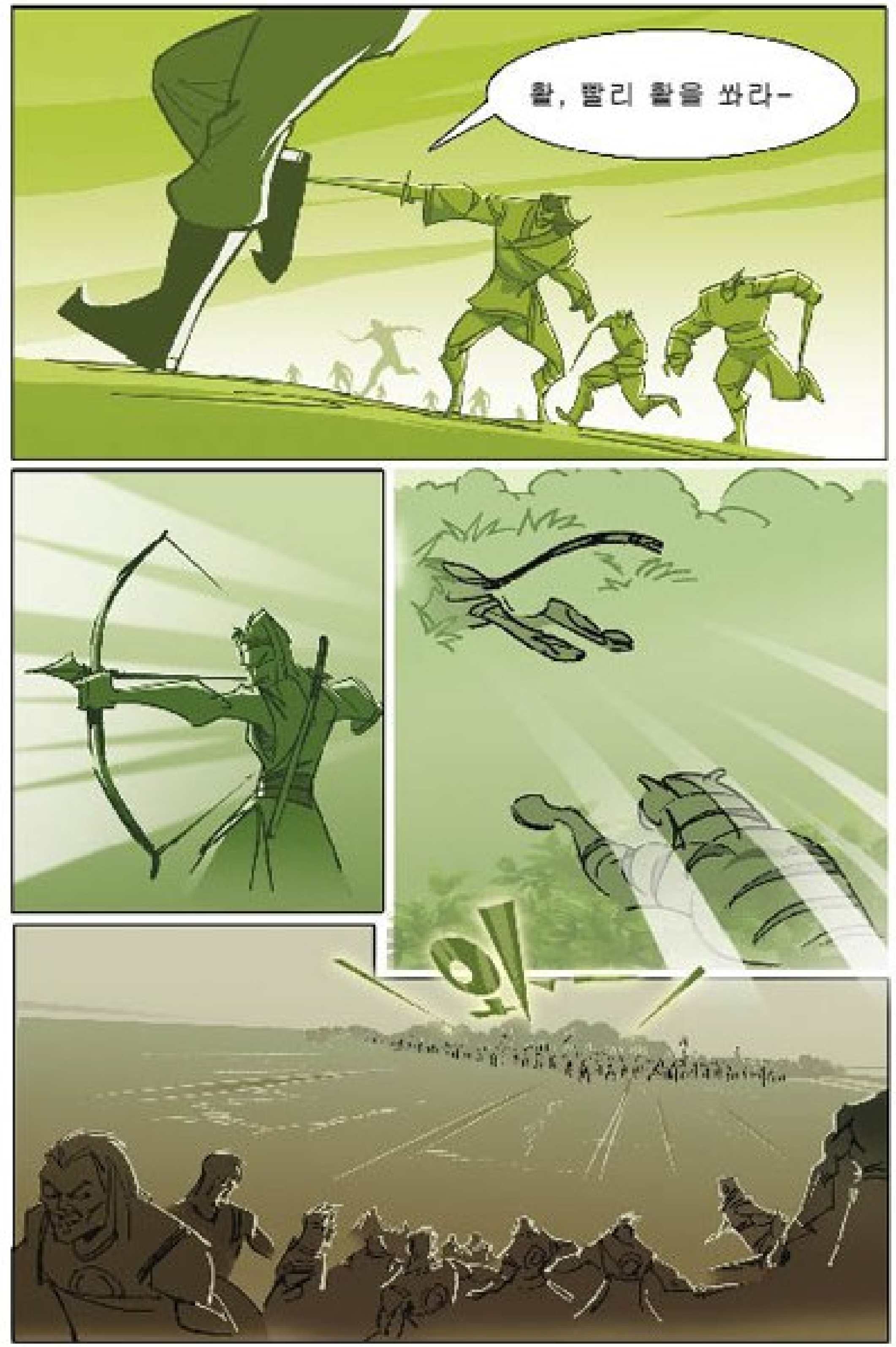
78



79



한편 싸움마당에 불쑥 범이 나타났다.
으악~
범이다~
따웅~



활, 빨리 활을 쏴라~
와


발기가 이기는가?
서로 어슷비슷하오나 이젠 힘들이 빠졌사옵니다. 머지않아 싸움이 끝장날것 같소이다.
그건 아무래도 좋다. 고구려가 이 기회에 저들끼리 실컷 싸워 약해지면 좋으니까. 하하하, 고구려의 기름진 땅과 재물, 백성은 머지않아 우리것이 될거다.
그런데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오이다. 난데없이 황소보다 더 큰 사나운 범이 나타나서 군사들을 죽이고있소이다. 그래서 모두 겁에 질려 싸움도 변변히 못하고있소이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발기네 군사들이겠지?
아니오이다, 우리 군사들도 그러하오이다.
밥통같은것들! 그 범을 쏘아죽이라고 해. 어쨌든 우리 군사들에게 비밀리에 령을 내려 고구려궁성을 빨리 함락하라고 알려라.
그리고 발기군사를 앞세워 우리 손실이 적게 나게 해야 한다. 어서 그렇게 해라.


고구려궁성
싸움이 어떻게 돼가고있느냐?
막아내기가 힘들게 돼가고있소이다. 아직 증원군이 도착하지 못하였는데 적은 필사적으로 공격해오고있소이다.
무슨 뾰족한 수도 없는데 우리도 다른 변방족 추장에게 도움을 청해볼가? 이번 기회에 우리도 그들을 끌어당기면…
그건 안되오이다. 외적을 막으려 또 외적을 끌어들이면 우린 아예 망국노가 되옵니다. 어떻게 하나 자기 힘으로 막아내야 할것이오이다.
그런데 형세가 이미 기울었으니 이제 어떻게 우리 힘으로 막아낸단 말이냐?
음


무슨 일인데 급히 뛰여드는것이냐?
큰일났소이다. 지금 먼지를 일으키며 사방에서 대군이 막 밀려들고있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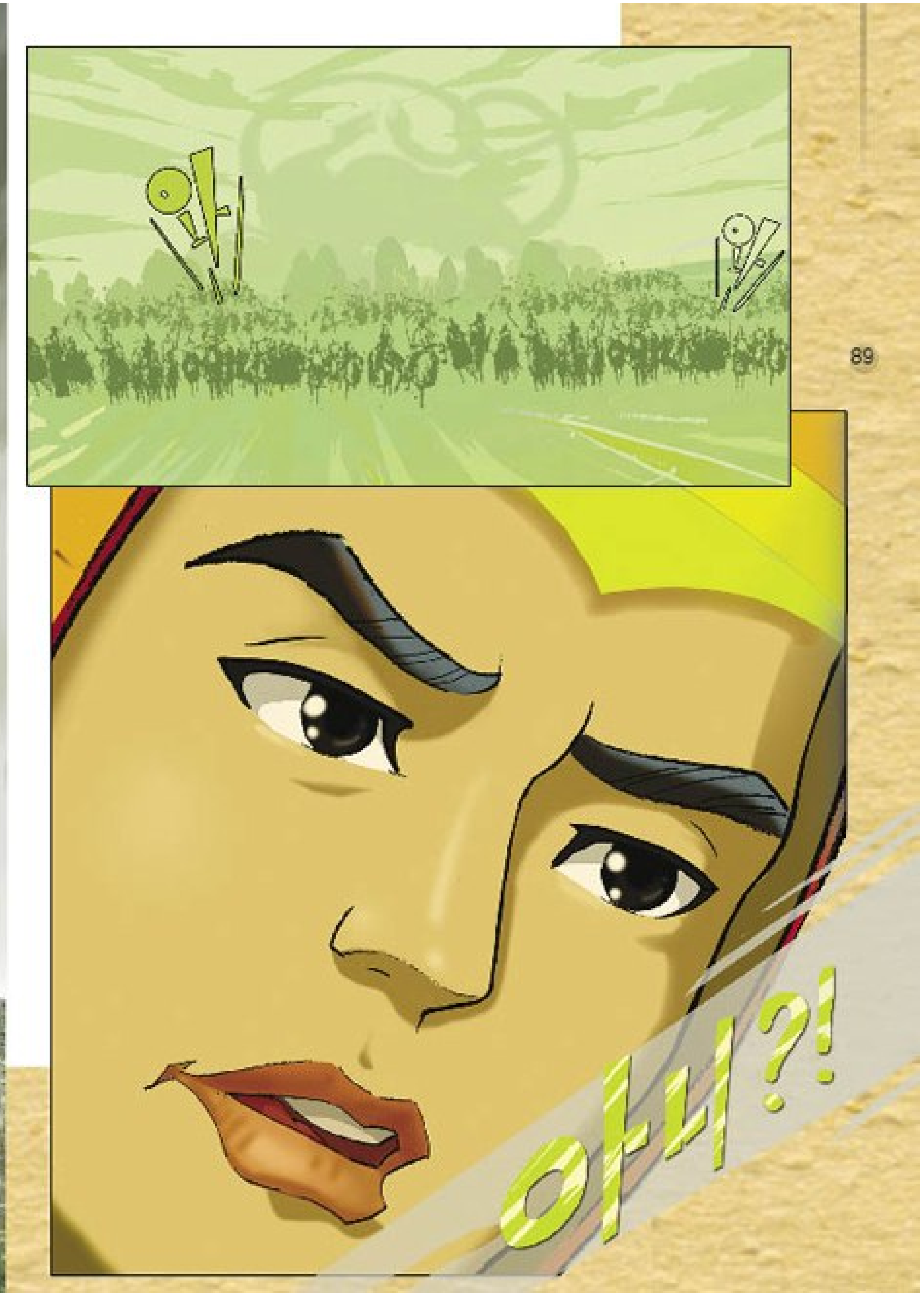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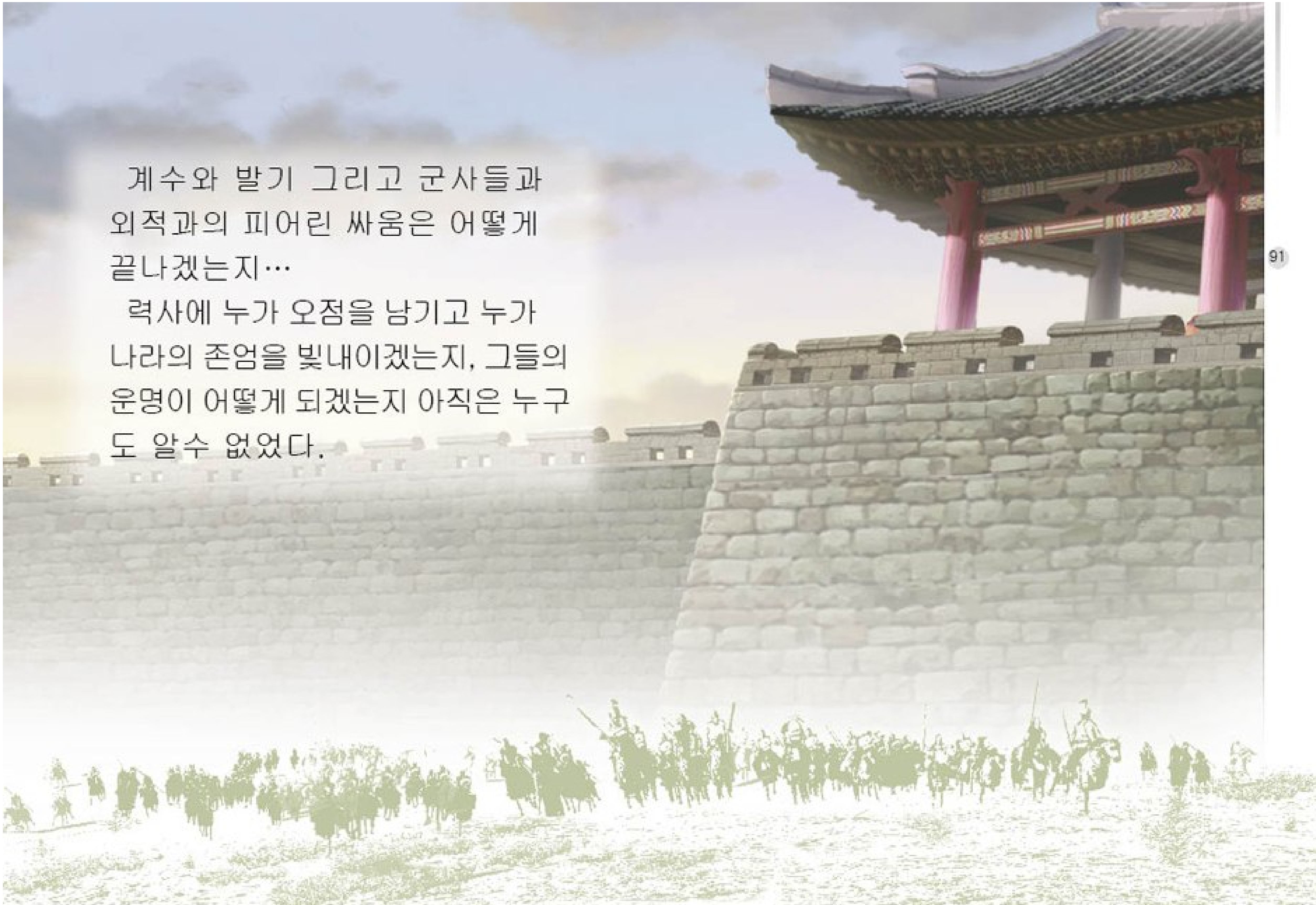
계수와 연우는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연우는 대군이 밀려온다는 소리에 마음이 불안하고 온몸이 굳어지는것만 같았다. 궁성은 온통 수라장으로 변하고 일부 대신들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계수는 성루에 올라 손채양을 하고 다가오는
대군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와!
와!
아니?!



계수와 발기 그리고 군사들과 외적과의 피어린 싸움은 어떻게 끝나겠는지…

력사에 누가 오점을 남기고 누가 나라의 존엄을 빛내이겠는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지 아직은 누구도 알수 없었다.